

다가오는 주의 날

신학박사 조 덕운

[말라기 3:16-4:3]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 책을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1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2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3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 대언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라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첫째 부류이고, 둘째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분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쪽에 속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의 물결과 전통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부에 계시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위의 구절들에서 무려 2400 년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 말라기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해당되는 시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주의 날 [Day of the Lord], 즉 종말의 시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기념책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이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념책 또는 ‘어린양의 생명책’에 관하여 몇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천년 왕국 이후에 올 새 예루살렘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26-27]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를 그들이 이 땅에서 원수를 제압할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욱 중요하고 기뻐할만한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어린양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 하며,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19-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기에 자신이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의로운 백성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분리는 사도바울이 예언한 휴거의 사건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커다란 낫을 가지고 지상의 잘 익은 수확, 즉 신약 교회의 신실한 영혼들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일이 바로 다가오는 휴거 사건일 것입니다. 말라기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수천년 전에 예언하심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휴거된 의로운 백성들은 어린양의 신부로서 그의 혼례식에 참여할 것이며, 종말 기간인 환란 기간중에 지상에서 온갖 재앙과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 불신자들과 사악한 무리들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종말의 환란을 공통적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면서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위의 말라기 3:18 절에서 잘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분명히 구분과 차별을 두실 것입니다. 즉, 대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구분하여 그들을 대홍수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처럼, 종말의 환란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들을 휴거시켜서 하늘로 대려가심으로써 그들을 진노의 재앙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 받은 백성 [saved people]'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자신의 지극한 진노와 복수의 재앙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하여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4:1 절에 기술하기를,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논에서 가을철 수확을 거두어 들이고 남은 벼단을 묶어 들이고 남은 지푸라기 덩부러기를 불태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지푸라기 더미는 쉽게 타서 남는 것은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하고 사악한 모든 육체는 타버린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나 그들의 영혼들은 영원토록 살아서 불과 벌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정권을 잡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반대하여, 동성애와 동성 결혼, 태어날 때 받은 성의 자의적 전환, 성적 문란과 퇴패, 법 질서의 파탄, 경제 질서의 파탄, 이혼과 낙태의 장려, 폭력의 조장, 불법 이민의 인위적 조장, 학교 교육 질서의 파괴, 헌법에 보장된 개인 권한과 자유의 불법적 탈취, 그리고 수백년간에 걸쳐

수립된 민주주의의 기본 프로세스와 질서의 파괴 등 참으로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사악한 조치들과 통치 행위들로 온 세계가 혼란과 불안에 들어가 있어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앞서 이야기한 불탄 지푸라기의 형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의로운 무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징벌 역사를 내려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17-2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날은 왕중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최종 승리의 날이 될 것이나,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매우 비참한 패배와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2 천여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온 세계를 통치할 왕중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 자신과 성경에 수천년 전에 미리 선언되었고 그 사건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설득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경청하여,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어 다가오는 환란의 때에 구원받아 하늘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의로운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사악한 무리들에게 행하실 진노의 재앙들을 생각할 때에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그 재앙들로부터 구원받아 하늘에 있게 될것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Thank you for your monetary contribution to my ministry: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South Korea: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